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영어교사자질함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Long-Term English Courses
Abroad on
Elementary Teachers' Development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이유미

2008년 8월

석사학위논문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영어교사자질함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Long-Term English Courses
Abroad on
Elementary Teachers' Development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이유미

2008년 8월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영어교사자질함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Long-Term English Courses
Abroad on
Elementary Teachers' Development

지도교수 고 경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이 유 미

2008년 5월

이유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년 6월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영어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의 하나로 12개국의 3억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4억이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7억이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로 사용하고 있다.

1997년부터 초등교육에 도입된 영어교육은 현재 의사소통과 문화이해라는 두 가지의 큰 목표를 정하고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과목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2008년 8월까지 전국의 50여 개 초등학교에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영어를 가르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방침이어서 1, 2학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효과적인 영어 수업을 위하여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초등 교사들은 교실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해외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초등학생이 나날이 늘고 있으며 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초등영어지도를 위한 자질 함양 혹은 향상의 방안으로 해외어학연수를 고려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해외장기어학연수를 다녀와야만 초등영어교사로서 자질을 갖추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일부 교사들 중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한 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역에서 14명의 교사가 6개월 이상의 유학휴직을 하였다.¹⁾ 이는 현재 초등교사 사이에 해외장기어학연수가 드문 현상이 아님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이 영어전담을 맡은 교사가 해외어학연수를 갔다 온 교사인지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해외어학연수를 갔다 와야만 영어를 가르칠 자질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영어를 가르치는 자질 중 어떤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가 조사한 바로는 전무한 실정으로 따라서

1) 제주시교육청 장기휴직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면담일 2008.1.4(금))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 초등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 어떠한 부분을 함양 혹은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한 이들 자질 중 국내에서도 함양 혹은 향상이 가능한 자질은 어떤 것들이며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야 함양 혹은 향상되는 영역들은 어떤 것인지, 해외장기어학연수는 일부 교사 혹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초등영어교육을 위한 자질 함양 혹은 향상을 위한 필수요소인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해외장기어학연수를 다녀온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본인들의 해외장기어학연수경험과 이어지는 초등영어지도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질문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는 초등영어지도와 관련한 해외장기어학연수의 효과를 각 자질별로 파악하는 자료가 되고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영어교사자질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초등교사들이 초등영어지도를 위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해외장기어학연수라 함은 영어실력향상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영어권 나라에서 이루어진 연수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일선 초등교사들이 해외연수의 내용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어학연수이며 학위취득이나 영어교수법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초등교사들이 선호하는 해외어학연수를 연구의 범위로 정하였으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나 교수법 수강을 겸하거나 목적으로 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1개월 정도의 단기어학연수의 경우는 영어실력향상에 충분한 기간으로 여겨지지 않아 제외하였다.

3. 연구문제

첫째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 초등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 어떠한 부분을 함양 혹은 향상시킬 수 있는가?

둘째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등영어교사의 자질 중 국내에서도 함양 혹은 향상이 가능한 자질은 어떤 것들이며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

해서야 함양 혹은 향상되는 영역들은 어떤 것인가?

위 두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해외장기어학연수가 과연 일부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초등영어교육을 위한 자질 함양 혹은 향상에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가.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배경

1981년 10월 13일에 교육부는 “초등학교 영어특별활동 운영방안(지침)”을 제시하고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에게 특별활동으로 영어교육을 처음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경석(1993)은 국제화·세계화를 위한 영어교육의 일환으로 특별활동이 아니라 정규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가 조사한 국가별 영어교육실태를 보면 조사대상 25개국 가운데 중국과 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초등학교 영어를 정규교과로 채택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배두본(1991)은 특별활동으로서의 영어교육은 정규 교과과정이 없다는 문제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규교육과정을 만들고 영어를 정규교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형기 외, 1991). 그래서 1995년 11월 1일자로 교육부 고시 제11995-7호에 의거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실행되었고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정규교과과정에 따라 정규시간에 주당 2시간씩 영어수업을 실시하였고 2000년부터는 확대되어 3, 4학년은 주당 1시간, 5, 6학년은 주당 2시간의 영어교육을 받게 되었다.

나. 초등학교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초등영어 교사는 초등영어 교육과정에 알맞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초등영어 교육과정은 개편되거나 수정되면서 다소 달라지기는 하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자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 7

차 교육과정 중 초등영어의 목적과 특징, 성취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초등학교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적과 특징

2000년부터 실시된 제7차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목표는 아래와 같다:

일상 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외국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가.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일상 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의사 소통을 한다.

다.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 외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

위 목표 중 ‘가’항이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목표이고 ‘나, 다’항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목표이다. ‘라’항은 국민 공통기본 과정 전체에 해당한다. 즉 초등영어에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의사소통에 필요한 문화이해도 목표를 두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는 제6차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어린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놀이 중심으로 학습을 하도록 교육내용과 성취 기준을 구성하였으며, 음성언어를 배운 후에 문자언어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음성언어 교육을 강조한 것은,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음성언어 교육을 너무 소홀히 하고 문자언어 중심으로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생긴 폐해를 개선해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영어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듣기와 말하기 교육을 보다 강화한 다음에 문자언어 교육을 한다는 것이지, 문자언어는 무시하고 음성언어만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이완기, 2003)

위의 목표에 준하여 초등영어교사는 의사소통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언어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외국의 문화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한다.

2) 초등학교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능/학년/단계별 성취 기준

초등영어를 가르칠 때 교사는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각 차시의 학습목표를 정하게 된다. 또한 각 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게 학습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성취기준을 알기 쉽도록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별로 정리하여 보았다.

<표 I -1> 초등학교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듣기/학년/단계별 성취 기준

3학년 듣기 성취기준	① 영어의 소리와 강세, 리듬, 억양을 듣고 식별한다. ② 낱말을 듣고 그 대상을 안다. ③ 한 문장으로 된 간단한 지시, 명령을 듣고 반응을 보인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개인, 가정, 학교 생활에 관련된 쉽고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⑤ 짧고 쉬운 내용의 챗트나 노래 등을 듣고 즐긴다. ⑥ 쉽고 간단한 게임이나 놀이의 내용을 듣고 이해한다. ⑦ 관용적인 표현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과정 - ⑧ 낱말들을 듣고, 낱말들 간의 의미 관계를 안다. ⑨ 한 문장을 듣고, 그 문장이 나타내는 그림을 찾아 낸다.
4학년 듣기 성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상 생활에 관한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②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관한 쉽고 간단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③ 한두 문장으로 된 명령이나 지시를 듣고 행동한다. ④ 쉽고 간단한 설명을 듣고 단순한 과업을 수행한다. ⑤ 쉽고 간단한 대화를 듣고, 대화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 등을 안다. ⑥ 일상 생활과 관련된 쉽고 간단한 말을 듣고, 중심 낱말을 찾는다. ⑦ 쉽고 간단한 역할놀이의 내용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과정 - ⑧ 쉽고 간단한 말을 듣고 의도, 목적을 대강 이해한다. ⑨ 두 문장을 듣고, 뜻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한다.
5학년 듣기 성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변 사람과 사물에 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② 쉬운 내용의 설명을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③ 간단한 대화를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 ④ 쉽고 간단한 대화를 듣고 주제를 이해한다. ⑤ 지나간 일에 관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 ⑥ 기초적인 전화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과정 - ⑦ 간단한 말을 듣고 상황과 목적을 이해한다. ⑧ 그림에 관한 말을 듣고 세부 사항을 이해한다.
6학년 듣기 성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상 생활에 관한 쉽고 간단한 내용의 말을 듣고, 의도나 목적을 이해한다. ② 간단한 대화를 듣고 주제를 이해한다. ③ 간단한 말을 듣고 세부 사항을 이해한다. ④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⑤ 이유를 묻고 답하는 쉽고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⑥ 대상을 비교하는 쉬운 말을 듣고 이해한다. ⑦ 간단한 전화 대화를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과정 - ⑧ 간단한 말을 듣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안다. ⑨ 간단한 말을 듣고 내용의 진위를 안다.

제7차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중 듣기 영역의 성취기준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쉽고 간단한 표현을 중심을 익히도록 되어있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 -2> 초등학교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말하기/학년/단계별 성취 기준

<p>3학년 말하기 성취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말한다. ② 주변의 친숙한 대상의 이름을 말한다. ③ 실물이나 그림을 보면서 낱말 또는 한 문장으로 말한다. ④ 개인, 가정, 학교 생활에 관해 쉽고 간단한 대화를 한다. ⑤ 짧고 쉬운 챗트나 노래를 따라 한다. ⑥ 쉽고 간단한 게임이나 놀이에 참여한다. ⑦ 인사하기와 같은 관용적인 표현을 한다. - 심화과정 - ⑧ 실물이나 그림을 보면서 문장 단위로 말한다. ⑨ 개인, 가정, 학교 생활에 관해 간단한 대화를 한다.
<p>4학년 말하기 성취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상 생활에 관한 쉽고 간단한 대화를 한다. ②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거나 묻고 답한다. ③ 한 문장으로 지시 또는 명령을 한다. ④ 필요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한다. ⑤ 짧고 쉬운 챗트나 노래를 한다. ⑥ 쉽고 간단한 역할놀이에 참여하여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한다. - 심화과정 - ⑦ 적절한 표정, 몸짓 등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⑧ 실물이나 그림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말을 간단히 한다.
<p>5학년 말하기 성취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황과 목적에 맞게 쉽고 간단한 대화를 한다. ② 하루 일과에 관해 간단히 말한다. ③ 두세 개의 연속된 문장으로 명령하고 요청한다. ④ 쉽고 간단한 말을 듣고 세부 사항에 관해 말한다. ⑤ 지나간 일에 관해 간단히 말한다. ⑥ 기초적인 전화 대화를 한다. - 심화과정 - ⑦ 일상 생활에 흔히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들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⑧ 과거에 일어났던 인상적인 일에 관한 느낌을 간단히 말한다.
<p>6학년 말하기 성취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상 생활에 관한 쉽고 간단한 말을 듣고, 그 내용에 관해 묻고 답한다. ② 일상적인 화제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말한다. ③ 간단한 대화를 듣고 주제를 말한다. ④ 간단한 말을 듣고 세부 사항을 말한다. ⑤ 지나간 일, 앞으로 할 일 등에 관해 간단하게 묻고 답한다. ⑥ 사실에 관해 간단히 이유를 묻고 답한다. ⑦ 간단한 전화 대화를 한다. - 심화과정 - ⑧ 그림이나 만화 등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을 차례대로 이야기한다.

	⑨ 쉽고 간단한 말로 대상을 비교한다.
--	-----------------------

제7차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중 말하기 영역은 3~6학년에서 가르치도록 되어있고, 듣기 영역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쉽고 간단한 표현이 중심이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 -3> 초등학교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읽기/학년/단계별 성취 기준

4학년 읽기 성취기준	① 알파벳 인쇄체 대소 문자를 식별하여 읽는다. ② 쉽고 간단한 낱말을 따라 읽는다. ③ 그림, 실물, 행동의 도움을 받아, 쉽고 간단한 낱말의 의미를 이해한다. - 심화과정 - ④ 주변의 영어 문자에 관해 호기심을 가진다. ⑤ 컴퓨터 자판의 알파벳 문자를 익힌다.
5학년 읽기 성취기준	① 쉽고 간단한 낱말의 의미를 이해한다. ② 쉽고 간단한 낱말을 소리내어 읽는다. ③ 들은 낱말을 찾아 읽는다. - 심화과정 - ④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⑤ 컴퓨터 자판에서 알파벳 문자를 찾아서 친다.
6학년 읽기 성취기준	①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를 읽고 의미를 이해한다. ② 구두로 익힌 어구나 문장들을 읽는다. ③ 쉽고 간단한 문장들을 읽는다. ④ 일상 생활에 관한 짧고 쉬운 글을 읽고 이해한다. - 심화과정 - ⑤ 일상 생활에 관한 짧고 쉬운 글을 읽고, 그 진위를 안다. ⑥ 들은 말과 일치하는 문장을 찾는다.

제7차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중 읽기 영역은 4~6학년에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으며 4학년은 알파벳 읽기, 5학년은 낱말 읽기, 6학년은 문장 읽기로 구성되어 있다.

<표 I -4> 초등학교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쓰기/학년/단계별 성취 기준

5학년 쓰기 성취기준	① 알파벳 인쇄체 대소 문자를 구별하여 쓴다. ② 구두로 익힌 낱말을 베껴 쓰거나 외워 쓴다. ③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그에 대응하는 낱말을 쓴다. - 심화과정 -
-------------------	---

	④ 들은 낱말을 받아 쓴다. ⑤ 컴퓨터 자판에서 구두로 익힌 낱말을 친다.
6학년 쓰기 성취기준	① 쉽고 간단한 낱말을 쓴다. ② 구두로 익힌 어구나 문장을 쓴다. ③ 인쇄체 대소 문자와 구두점(마침표, 물음표 등)을 바르게 쓴다. - 심화과정 - ④ 예시문을 참고하여, 실물이나 그림을 한 문장으로 묘사한다. ⑤ 쉽고 간단한 생일 카드, 감사 카드 등을 쓴다.

제7차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중 쓰기 부분은 5~6학년에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5학년은 단어 쓰기, 6학년은 문장 쓰기를 하도록 구성되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2. 초등학교의 영어 교사로서 요구되는 자질 및 능력

영어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으로는 교사, 교재, 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우수한 교사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우수한 교사는 빈약한 시설과 불충분한 교재 가운데서도 창의력과 의욕을 발휘하여 교육의 성공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고정석, 1997).

이완기(1997)는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사의 자질을 영어사용자, 영어교육자, 영어지식자, 영어교수자의 4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영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사용자(language user)이어야 한다.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모방능력을 고려해 발음의 정확성을 키워야 한다.

둘째, 학습자와 학습 내용에 적합한 교수 방법의 원리와 그 적용 방법, 절차 등을 거의 통달하고 있어야 한다.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교육이므로 아동들의 흥미와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열정적인 교사여야 한다.

셋째, 영어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영어지식 분석자(English language analyst)의 역할로서 영문법, 영어학, 영미문학 및 영미사회와 문화 등의 영어에 관한 세부적이고 광범위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넷째,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무엇 인지를 인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학습조정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교육내용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과정과 학습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초등학교생들의 특성과 학습 및 행동 양식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외국어-영어의 전문적 지식과 영어 교수법을 확실히 익히고, 교실-대규모 학급에 적용되는 지도 능력을 키우고 영어교재의 제작능력 및 각종 교구의 사용 능력에도 탁월해야 한다.

이완기의 자질 논의가 이상적인 도달기준이라면 배두본(1998)은 언어능력, 영어 교육학에 관한 지식, 영어 교수 기술면으로 나누어 얘기하면서 우수 기준뿐만 아니라 최저의 기준을 명시하여 좀 더 현실적으로 초등영어지도를 위해 필요한 자질 수준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배두본은 언어능력면에서 듣기, 말하기, 독해, 작문 능력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영어 듣기 능력은 최저의 기준으로 초등학교 시청각 자료를 듣거나 언어를 사용하는 성인의 일반적 화제에 관한 간단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영어를 사용하는 성인이 정상적인 대화 속도로 하는 말을 이해하는 정도를 우수하다고 보았다. 말하기 능력에서는 교안을 참고하여 구문 상으로 크게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영어로 수업을 하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성원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를 최저로 보고 영어로 수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고, 준비된 원고를 일일이 참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창하게 말하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원어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우수하다고 보았다. 독해 능력에서는 최저를 친숙한 주제에 관한 간단한 글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 교재를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고 영어로 쓰인 신문이나 잡지에 수록된 일반적 자료를 읽고 즉시 이해할 수 있다면 우수한 것이라고 한다. 작문 능력은 교실 수업에서 예문을 바르게 제시하고 교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짧고 간단한 편지를 쓰는 정도를 최저로 보고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편지, 보고서, 요약문 등을 쓸 수 있는 정도를 우수한 것으로 보았다.

영어 교육학에 관한 지식은 최저의 기준으로 의사 소통, 발음과 문법 유형, 국어와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알고, 학생들의 학습심리와 언어 발달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아는 것으로 보았고 우수한 기준으로 의사 소통 기능, 언어 습득과 학습 이론, 오류 분석과 담화 분석 이론, 문화적 차이점을 알아 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영어 교수 기술은 언어 기능별, 의사 소통 기능, 노래, 게임,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영어를 교수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수준을 최저로 보고 교수 방법과 기술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교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수하다고 보았다.

또한 배두본(2000) 정부에서는 영어 수업시간에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초등학교 영어교사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학습 활동을 유도하는 기술과 수업 진행 기술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위의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초등학교 영어교사에 요구되는 자질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영어사용능력이다.

이는 위의 두 학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능력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기능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영어교육 성취기준을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영어교육학 지식이다.

이완기와 배두본은 공히 초등학교 영어교사는 언어습득과 학습 이론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하며 문화적 차이점을 알아 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영어수업기술이다.

이 또한 위의 두 학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으로 영어를 많이 알고 있는 교사라 해도 그것을 아동의 특징에 맞도록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각 주제 맞는 교수법을 선별해 낼 수 있어야 하므로 다양한 교수법의 특징과 적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게임, 노래, 챗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최저의 기준과 우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제7차 교육과정에 서술된 각 영역별 성취기준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배두본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위의 세 가지 자질을 함양하는데 해외장기어학연수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영어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온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연수경험자는 제외하였다. 해외장기어학연수를 다녀 온 교사를

15명 정도를 찾은 후 이 중 본 연구에 참여해 줄 수 있는 여섯 명을 대상으로 다섯 명은 직접면담의 방법으로 일대일 인터뷰를 하였고 타 지역에 있는 등의 이유로 만날 수 없는 대상자는 전자우편 이용 및 서면응답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연구대상자에게 평상 시 본 논문의 논지에 대하여 생각을 교환하거나 연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논지에 맞게 이끄는 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2. 데이터 정리

본 연구에서는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영어교사자질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연구의 방법을 택하여 여섯 명이라는 소수의 연구대상자로부터 해외장기어학연수에 대해서 반체계적 면담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얻고 연구주제에 맞는 질문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 연구에서 행해진 반체계적인 면담의 방법은 사전에 면담에 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되 실제 면담 장면에서는 면담을 융통성있게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묻는 방법 즉 질적 연구 방법을 취한 것은 해외장기어학연수 경험자들의 생각 혹은 의견을 그대로 옮겨 놓음으로서 생생한 현장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른 정황과 자세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서 공감 혹은 그 반대의 생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해외장기어학연수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외장기어학연수의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막연하게 동경의 대상이 되기 쉬운 해외장기어학연수의 실체를 가감 없이 느껴보고 그 결과 긍정적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외장기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영어교사자질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연구의 방법을 택하였다.

3. 조사도구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영어교사 자질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구성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가. 질문 내용

본 연구에서 해외장기어학연수라 함은 영어실력향상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영어권 나라에서 이루어진 연수를 뜻하는 것이므로 연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표 II-1> 해외장기어학연수 국가, 기간 및 목적

해외장기어학연수 국가, 기간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장기어학연수를 다녀 온 나라는 어느 곳이었나요? - 해외장기어학연수를 다녀 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해외장기어학연수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	--

해외장기어학연수 가기 전 영어교수 경험이 있는 교사에게는 해외장기어학연수 전과 후 영어지도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의 영어 경험을 물었다.

<표 II-2> 해외장기어학연수 가기 전 상황(초등영어 교수 경험)

해외장기어학연수 가기 전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장기어학연수 갈 때 교사 경력은 어떻게 되었나요? - 해외장기어학연수 가기 전 영어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몇 학년을 몇 년 하였나요? 전담이었나요, 담임이었나요?
------------------	---

초등영어교사자질에는 언어능력, 영어교육학에 관한 지식, 영어교수기술 등이 있다. 연구대상자의 영어지도자질이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함양된 것인지 구별하기 위하여 해외장기어학연수 가기 전 초등영어지도자질 관련 실력을 물었다. 어학실력향상으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영어교육학에 관한 지식과 영어교수기술 등도 부차적으로 함양 혹은 향상되는지와 연관시킬 수 있는 질문이다.

<표 II-3> 해외장기어학연수 가기 전 영어지도자질 정도

해외장기어학연수 가기 전 영어 지도자질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장기어학연수 가기 전 영어 지도자질(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어교육학에 관한 지식, 영어교수 기술 등)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되나요? 언어능력면에서 객관적인 점수가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	---

본 연구에서 해외장기어학연수라 함은 영어실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어학연

수로 학위 취득이나 영어 교수법 습득을 목적으로 연수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수과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II-4> 해외장기어학연수 내용

해외장기어학연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내용으로 배웠나요? - 일주일에 몇 시간, 어떤 과목을 수강하였나요? - 수강 내용은 어학만이었나요, 교수법도 있었나요?
-------------	---

연구대상 교사들의 해외장기어학연수 동기가 초등영어교사의 자질 함양 내지 향상과 관련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또한 이 연수 자체가 초등영어 지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계획하게 된 동기가 초등영어지도와 관계가 있다면 연수가기 전 초등영어지도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II-5> 해외장기어학연수와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목표지도와의 관련

해외장기어학연수와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목표지도와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계획하게 된 동기가 초등영어지도와 관련이 있는지요? -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계획하게 된 동기가 초등영어지도와 관계 있다면 연수가기 전 초등영어지도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는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요? <p style="text-align: center;">< 언어능력 부분 ></p> <p>① 듣기 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 듣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는지요? 어렵다고 느꼈다면 어떤 부분에서인지요? <p>② 말하기 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 말하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는지요? 어렵다고 느꼈다면 어떤 부분에서인지요? <p>③ 읽기 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 읽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는지요? 어렵다고 느꼈다면 어떤 부분에서인지요?
---------------------------------	---

	<p>④ 쓰기 부분</p> <p>-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 쓰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는지요? 어렵다고 느꼈다면 어떤 부분에서인지요?</p> <p>< 문화 부분 ></p> <p>- 7차 교육과정해설에 제시된 문화 부분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에는 어렵다고 느꼈는지요? 어렵다고 느꼈다면 어떤 부분에서인지요?</p>
--	--

해외장기어학연수가 교수법,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목표 지도면,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게 지도하는 면 등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었다. 이는 연구문제 1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 초등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 어떠한 부분을 함양 혹은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밝히기 위함이다.

<표 II-6> 해외장기어학연수 후 변화된 부분

<p>해외장기어학연수 후 변화된 부분</p>	<p>-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영어지도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다녀온 결과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 중 어떤 부분이 향상되었는지요?</p> <p>< 언어능력 부분 ></p> <p>① 듣기 부분</p> <p>-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배운 내용들이 7차 교육과정 듣기 목표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요?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에서인지요?</p> <p>- 3~6학년까지 각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게 듣기 부분을 가르치는데 해외장기어학연수 내용이 도움이 되었는지요?</p> <p>② 말하기 부분</p> <p>-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배운 내용들이 7차 교육과정 말하기 목표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요?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에서인지요?</p> <p>- 3~6학년까지 각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게 말하기 부분을 가르치는데 해외장기어학연수 내용이 도움이 되었는지요?</p> <p>③ 읽기 부분</p> <p>-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배운 내용들이 7차 교육과정 읽기 목표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요?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에</p>
--------------------------	---

	<p>서인지요?</p> <p>- 3~6학년까지 각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게 읽기 부분을 가르치는데 해외장기어학연수 내용이 도움이 되었는지요?</p> <p>④ 쓰기 부분</p> <p>-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배운 내용들이 7차 교육과정 쓰기 목표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요?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서인지요?</p> <p>- 3~6학년까지 각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게 쓰기 부분을 가르치는데 해외장기어학연수 내용이 도움이 되었는지요?</p> <p>< 문화 부분 ></p> <p>-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배운 내용들이 문화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요?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서인지요?</p>
--	---

연구문제 2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등영어교사의 자질 중 국내에서도 함양 혹은 향상이 가능한 자질은 어떤 것들이며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야 함양 혹은 향상되는 영역들은 어떤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얻어지는 초등영어교사의 자질과 국내에서도 그런 자질함양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하였다.

<표 II-7>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얻어지는 초등영어교사의 자질과 국내에서 함양 가능 여부

<p>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얻어지는 초등영어교사의 자질과 국내에서 함양 가능 여부</p>	<p>< 언어능력 부분 ></p> <p>① 듣기 부분</p> <p>- 7차 교육과정 듣기 부분을 가르치는 자질을 기르는 것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p> <p>② 말하기 부분</p> <p>- 7차 교육과정 말하기 부분을 가르치는 자질을 기르는 것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p> <p>③ 읽기 부분</p> <p>- 7차 교육과정 읽기 부분을 가르치는 자질을 기르는 것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p>
--	---

	<p>④ 쓰기 부분</p> <p>- 7차 교육과정 쓰기 부분을 가르치는 자질을 기르는 것이 해외 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p> <p>< 문화 부분 ></p> <p>- 문화 부분을 가르치는 자질을 기르는 것이 해외 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p>
--	---

배두본은 초등영어교사의 자질로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독해 능력, 작문 능력, 영어교육학에 관한 지식, 영어 교수 기술의 각 영역에 대하여 최고의 수준과 우수한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 도달이 국내에서도 가능한지 혹은 해외 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는 연구문제 2 ‘해외 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등영어교사의 자질 중 국내에서도 함양 혹은 향상이 가능한 자질은 어떤 것들이며 해외 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야 함양 혹은 향상되는 영역들은 어떤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표 II-8> 해외 장기어학연수와 배두본이 제시한 초등영어교사의 자질 함양

<p>해외 장기어학연수와 배두본이 제시한 초등영어교사의 자질 함양</p>	<p>< 영어 듣기 능력 부분 ></p> <p>배두본은 초등학교 시청각 자료를 듣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성인의 일반적 화제에 관한 간단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영어를 사용하는 성인이 정상적인 대화 속도로 하는 말을 이해하는 정도까지를 초등학교 영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듣기 능력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능력함양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아니면 해외 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p> <p>< 영어 말하기 능력 부분 ></p> <p>배두본은 교안을 참고하여 구문 상으로 크게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영어로 수업을 하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성원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에서부터 영어로 수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고, 준비된 원고를 일일이 참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창하게 말하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원어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초등학교 영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 말하기 능력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능력함양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아니면 해외 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p>
--	--

	<p>< 영어 독해 능력 부분 > 배두본은 친숙한 주제에 관한 간단한 글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 교재들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부터 영어로 쓰인 신문이나 잡지에 수록된 일반적 자료를 읽고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독해능력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능력함양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아니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p> <p>< 영어 작문 능력 부분 > 배두본은 교실 수업에서 예문을 바르게 제시하고 교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짧고 간단한 편지를 쓰는 정도에서부터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편지, 보고서, 요약문 등을 쓸 수 있는 정도까지를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작문능력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능력함양이 국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아니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p> <p>< 영어 교육학에 관한 지식 부분 > 배두본은 의사 소통, 발음과 문법 유형, 국어와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알고, 학생들의 학습심리와 언어 발달에 관한 이론과 실체를 아는 정도에서부터 의사 소통기능, 언어 습득과 학습 이론, 오류 분석과 담화 분석 이론, 문화적 차이점을 알아 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교육학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능력함양은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 부차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는지요?</p> <p>< 영어 교수 기술 부분 > 배두본은 언어 기능별, 의사 소통 기능, 노래, 게임,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영어를 교수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수준에서부터 교수 방법과 기술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교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교수기술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능력함양은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 부차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는지요?</p>
--	---

IV. 연구결과

1. 해외장기어학연수 관련 질문별 구분

가. 연구대상자의 성별, 나이 및 해외장기어학연수 국가, 기간, 및 연수 전 교사 경력

연구대상자의 성별, 나이, 해외장기어학연수 국가 및 기간, 해외장기어학연수 갈 때의 교사 경력은 다음과 같다.

<표 III-1> 연구대상자 구분

연구대상자 질문내용	A 교사	B 교사	C 교사	D 교사	E 교사	F 교사
성별	여	여	여	여	여	여
연령	31	32	36	35	32	35
해외장기어학 연수 국가	영국	미국	영국	뉴질랜드	미국	뉴질랜드
해외장기어학 연수 기간	11개월	8개월	12개월	11개월	10개월	12개월
해외장기어학연 수 갈 때 교사 경력	5년	3년	6년	3년	4년 6월	3년 6월

나. 해외장기어학연수의 목적

연구대상자는 교육청 재정적 지원 없이 모두 자비를 들여 휴직을 하며 해외장기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 그리고 노력을 들여 해외장기어학연수를 다녀 온 목적을 물었다.

<표 III-2> 해외장기어학연수의 목적

A교사	영어실력향상, 문화체험, 휴식
B교사	영어실력향상, 문화체험, 휴식
C교사	영어실력향상, 선교활동
D교사	영어실력향상
E교사	영어실력향상, 재충전
F교사	영어실력향상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영어 수업을 하기 위함

조사결과, 휴식을 갖고자 하는 목적,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하는 목적 등 교사들의 해외장기어학연수 목적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공히 영어실력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해외장기어학연수 가기 전 초등영어 교수 경험

해외장기어학연수 전, 초등영어를 지도한 경험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표 III-3> 해외장기어학연수 가기 전 초등영어 교수 경험

A교사	① 3학년 1개 반 1년(담임) ② 4학년 1개 반 1년(담임) ③ 5학년 3개 반 2년(교환) ④ 6학년 1개 반 1년(담임)
B교사	없음
C교사	6학년 2개 반 1년(교환)
D교사	4학년 1개 반 1년(담임)
E교사	4학년 1개 반 2년(담임)
F교사	① 3학년 1개 반 1년 6월(담임) ② 4학년 1개 반 1년(담임) ③ 5학년 1개 반 1년(담임)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해외장기어학연수 전 담임으로서 혹은 교환수업의 형태로 초등영어 수업을 하였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라. 해외장기어학연수 가기 전 영어 교사 자질

해외장기어학연수 가기 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어교육학에 관한 지식, 영어교수 기술 등의 영어 지도자질 함양 정도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는 지 조사하였다.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등 각 영역별로 조금씩 다른 가지각색의 수준을 가지고 해외장기어학연수에 임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 말하기, 듣기에서 원어민과 무난하게 소통할 정도로 회화가 가능했던 경우, 간단한 회화가 가능하다고 표현하거나 중급 정도인 경우, 초급정도의 실력인 경우가 있었다. 읽기부분에서는 간단한 작문을 읽을 수 있는 경우, 중하정도, 중정도 등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었다. 쓰기부분에서는 중정도, 간단한 작문을 할 수 있는 정도, 초급, 작문은 거의 못함 등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었다. 영어교육학적 지식 정도에 대해서는 대학원을 통해 배웠으므로 영어교육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경우, 방통대를 통해 배운 내용이 있던 경우, 그 쪽에 관심이 없었던 경우 등이 있었다. 영어교수기술면에서는 심화 연수 등의 여러 연수를 통해 배운 것이 있던 경우, 그 쪽에 관심이 없었던 경우 등이 있었다.

어학연수를 간 첫 날, 말하기 테스트랑 문법 테스트랑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때 받은 게 elementary - pre intermediate - intermediate - upper class - advance 중에서 intermediate 받고, 말하기는 원어민과 회화가 가능했어요.”(A교사)

전부 다 부족했어요. 내가 완전 초급이라고 느끼는 게 거기 작성하면서 서류작성 그 다음에 전화로 막 확인하고 자기 소개서 쓰고 하는 데서 내가 말을 너무 못하는 거라. 영어 교육학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갖는 편이 아니었고요. 영어교수기술에 관해서도 그리 관심이 없었어요.(B교사)

간단한 회화 정도는 할 수 있었고, 간단한 작문도 읽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높은 정도는 아니고, 독해도 고등학교 나오니까. 그 정도지 뭐. 뛰어난 정도는 아니고. 작문도, 영어대학원 3학기까지 해서 갔으니까 영어교육학에 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었고, 기술은 별로 없었지. 영어교수기술은 전혀 없었고.(C교사)

상중하로 표현해 본다면 듣기, 말하기, 읽기는 중하정도이고 작문은 하, 작문은 거의 못하니까. 교육학에 관한 지식은 영문학 쪽으로 해서 방통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강좌 정도 들었던 것 같고 영어교수 기술은 심화연수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일반 연수 받았고, 심화연수 받았고, 그 다음에 자율 연수도 받았고.(D교사)

정확히 점수는 잘 모르겠어요. 가기 전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ESL 과정이었는데 반편성을 위해 시험을 받는데요. 점수가 얼마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 토플시험 보고 거기 선생님들이랑 면접 보고 저는 listening이 잘 안 돼서 다른 분야보다 약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중정도.(E교사)

꾸준하게 사설학원을 다니면서 수학했어요. 말하기와 듣기는 원어민과 원활하지는 않으나 무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F교사)

실력을 평가하는 말은 다양하게 나왔지만 연구자가 평소에 알아 온 연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에도 영어에 관심을 갖고 영어실력향상에 노력하는 교사들로 국내에서 영어교사로서의 자질함양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왔음을 알 수 있다.

마. 해외장기어학연수내용(교육과정)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어떠한 교육과정으로 공부하였는지 조사하였다. 특히 어학만을 공부했는지 교수법 쪽도 공부했는지를 물었으며 참고로 구체적인 수강시간과 학점 등도 물었다.

면담 결과 말하기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듣기가 같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문법 부분, 읽기 부분, 쓰기 부분을 받은 교사도 있다.

<표 III-4> 해외장기어학연수내용(교육과정)

A교사	<p>① 처음 : 영어회화(3월-8월 6개월) Intermediate -> advanced 단계로 올라감 (5단계 elementary - pre intermediate- intermediate-upper-advanced) 문법이랑 말하기 위주로 테스트 수행평가 식으로 계속 받음. 별다르게 쓰기, 읽기 테스트는 없었음</p> <p>② 문법과 말하기가 합쳐져서 주당 3과목, 말하기의 비중이 높음 중간 : 시험반(9월-12월)-IELTS시험²⁾을 위해 시험반에 들어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공부함</p> <p>③ 끝 : 1월 - 회화(보름밖에 없었음)</p>
B교사	<p>① 대학에 있는 “ESL과정³⁾”</p> <p>② 하루 5~6시간</p> <p>③ 수강 내용은 어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한 교재를 갖고 ‘말하기’를 중심으로 지도 받고 그 말하기 내용에 필요한 문법은 연결해서 배우고, 쓰기 부분은 일기나 리포트를 통하여 지도 받음 (비중으로 치면 말하기 60%, 문법 20-30%, 그 외 기타 부분)</p>
C교사	<p>① 처음 1개월 : 네덜란드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음. 선교학에 대해서 계속 영어로 강의 들음. 그 때 영어 듣기에 대한 자극을 많이 받게 됨</p> <p>② 그 후 남은 기간 : 영국에서 선교학과 성경공부를 받음. 그 때 수업방법에 대한 많이 배움. 강의를 듣고 난 후 역할극, 창작극 등으로 발표를 해 보게 했는데 그것을 익숙하게 하게 됨. 원어민 교사를 한 명씩 붙여 주고(멘토) 1일 스케줄을 정리해 보게 하며 주1회 식사를 같이 함.</p> <p>* 하루 일과 - 아침 : 예배 → 멘토와 하루 일과 점검 → 오전 강의 → 오후 봉사활동</p>
D교사	<p>① 오전에는 문법 위주, 오후에는 주제 중심으로 말하기 위주이며 읽기나 게임이 같이 병행됨</p> <p>② 작문은 한 달 정도 TOEFL⁴⁾코스를 받을 때 지도받음</p>
E교사	<p>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4-5시간 수업 받음</p> <p>② 듣기/말하기, 작문, 문화, 문법 시간이 따로 있었고 각 교과별로 선생님이 다르게 들어 와서 다른 교재로 공부함</p> <p>③ 금요일은 현장체험학습으로 주변을 돌아 봄</p>
F교사	<p>① 하루 6시간 씩 주당 30시간 수업 받음</p> <p>②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모든 기능을 통합하여 배움</p>

2)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영국연방국가에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평가함

2. 해외장기어학연수와 초등영어지도 관련

가.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계획하게 된 동기와 초등영어지도와의 관계 여부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계획하게 된 동기가 초등영어지도와 관계있는지를 물었다.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계획하게 된 동기에 초등영어지도가 뚜렷하게 관련이 있다는 내용으로는 “초등영어교육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질 높은 영어 수업을 하고자 해외어학연수를 간 것이니까 관계가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초등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 영어교육에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영어능력이 필요한데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대학원을 갈까 하다가 나름대로 실력을 쌓고 가자고 생각해서 가게 된 거예요.(A교사)

질 높은 영어 수업을 하고자 하여 갔던 것이니까 관계가 있죠.(F교사)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계획하게 된 동기에 초등영어지도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이유로는 초등영어교사입장으로 간 것이고 초등영어를 계속 지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있죠! 왜냐하면 초등영어를 이미 애들이 하고 있고 처음에는 영어를 접하고 동기를 갖고 흥미를 갖고. 여기서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되니까 나름대로 외국어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직접 가고자 하는 게 넓은 많은 경험을 지금 해서 나중에 그것도 외국 갔다 왔던 경험들도 애들 가르치는데 문화라든지 그냥 영어 얘기하는 거랑 차원이 다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갔다 왔어요.(B교사)

처음에 물론 3년 있다 휴식 할 겸 갔다 왔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영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에 관심 있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초등영어 계속 할 걸로 생각하니까 그거는 배제하는 건 아니지 어쨌든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D교사)

전혀 관계없다고는 볼 수 없고 어쨌든 교사로서 떠나는 거니까 갔다 오고 나면 실력이 향상 되겠구나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게 목적은 아니었지만.(E교사)

3)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제2언어로서의 영어

4)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미국이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영어권 나라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입학할 때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에게 영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

이에 반하여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가게 된 동기와 초등영어지도 관련은 미미하다고 답한 내용도 있다:

일단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논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런 거 목적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장소 선택에 있어서 내가 교인이다 보니까 안전하고 내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내 친구가 먼저 있었던 곳이라 알게 되서 통해서 간 거니까 초등영어지도와는 관계가 미미하지.(C교사)

모든 연구대상자 초등교사로서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간 것이므로 직접적인 목적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재된 동기 면에서는 대부분 초등영어지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해외장기어학연수 가기 전 초등영어지도에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

해외장기어학연수 가기 전 초등영어지도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일부교사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원어민과의 원활한 대화, 실력이 높은 학생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으로 말하기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답하였다.

다 부족한데 교수할 때는 말하기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지도는 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고 이왕이면 잘 하는, 요즘 애들이 워낙 잘 하니까, 그보다는 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A교사)

5, 6학년 한다면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교육과정 내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이미 아이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발음이라든지... (B교사)

초등학교에서 영어 회화가 중심이 되므로 말하기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원어민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D교사)

말하기가 특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F교사)

정해진 문장 이외의 것을 들으면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듣기 부분에 부족하다고 답한 내용이 있다.

듣기 부분이 좀 약했어요. 주어진 부분을 보면서 지도하는 것은 하겠는데 약간만 벗어난 것을 들으려고 하면 많이 힘들었거든요.(E교사)

문화적 차이를 지도하는데 대한 어려움 등으로 문화 부분지도에 부족하다고 답한 경우다.

문화적 차이를 지도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문화에서 나온 건데 ‘왜 그렇게 사용하는가?’라는 부분을 가르치는데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간단한 초등영어는 가르치는데 부족이 없지만 예를 들어 5학년 단원에 Do you want some more?에서 식탁예절을 가르쳐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곳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C교사)

음성언어중심의 초등영어 특징과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말하기 부분에 대한 교사의 중압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말하는 것에 부족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원어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말하기,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의 말하기가 부족하다고 답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 초등영어지도에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 중 해외장기어학연수 후 향상된 부분
해외장기어학연수를 다녀 온 결과 초등영어지도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 중 어떤 부분에서 향상되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말하기 부분의 반응이 빨라졌다거나, 체험을 통한 문화 부분 이해, 회화실력의 향상 등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해외장기어학연수 후 많이 향상되었다고 답하였다.

말하기 반응이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서 뭐라고 해야 하지 한 번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데 지금도 문법이 많이 틀리면서 말하지만 a 빼먹고 과거형을 현재형으로 쓰고 하지만, 지금은 말을 들으면 일단 대답이 가능한 정도로 향상이 되었어요. 되든 안 되든 들으면 약간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어요.(A교사)

문화 체험을 많이 한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영미 문화는 딱 ‘이거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사람별로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C교사)

해외 어학연수 결과 당연히 회화부분이 높게 향상되었다고 생각돼요. 원어민과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으로 봐서.(D교사)

해외장기어학연수 전 초등영어지도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 기간의 제약 등으로 해장기어학연수를 통해 그리 많이 향상되었다고 느끼지 않는 교사들의

답변이다.

말하기 부분은 조금 향상되었어요. 해외어학연수 기간 8개월은 '많이 향상되었다'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B교사)

저 같은 경우에는 듣기 등 전반적으로 실력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실력이 확 늘었거나 하는 것은 없었어요.(E교사)

앞서 제시한 해외장기어학연수내용과 향상된 부분을 비교해 보면 연수내용에 있는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을 많이 들여 연수한 부분이 꼭 많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문법과 쓰기 부분은 듣기와 말하기에 비해 향상 정도가 다소 약했다.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에 초등영어지도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아니었지만 발음이 귀에 익으면서 듣기 실력이 향상된 경우와 읽기와 쓰기 부분에서도 실력이 향상된 것을 느꼈다는 의견이 있다.

듣기가 많이 향상되었어요. 일상 회화가 거의 다 들리고, TV를 보면 단어, 단어가 들어오니까 흘러가지가 않고요. 읽거나 쓰기도 다 향상이 된 것 같아요. 문법보다는 이게 더 향상이 된 것 같아요.(A교사)

듣기가 많이 향상되었어요. 현지 발음에 익었으니까요.(C교사)

읽기도 많이 늘고 점수는 너무 오래 되어서 잘 기억이 안 나고 상중하로 표현한다면 가기 전보다 한 템포 올라간 걸로 생각해서 중정도 되었다고 봐요.(D교사)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언어능력 향상 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해외장기어학연수와 초등학교 7차 영어과 교육과정 목표 성취

초등영어듣기에서는 가장 어려운 성취기준이라 할 수 있는 6학년 듣기 목표를 보여주며 목표성취를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에는 어렵다고 느꼈는지 물었다.

가. 해외장기어학연수와 초등영어듣기 지도

1) 듣기 목표 실현이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에 어렵다고 느꼈는지 여부

듣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에 어렵다고 느꼈는지 물었다. 7차 교육과정에 나온 목표를 실제로 보여 주며 질문하였는데 초등학교 듣기 목표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듣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해외어학연수 전에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답변들이 있었다.

어렵다고 느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주어진 CD 위주로 가니까 그거대로만 가면 듣기도 그렇고 다른 영역들로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A교사)

초등학교 듣기 목표 정도의 간단한 듣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수준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B교사)

어학연수 가기 전에 영어를 가르쳤던 학년이 4학년인데 4학년 과정은 굳이 내용상으로 그렇게 막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D교사)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C교사, E교사, F교사)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 듣기 목표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에 어렵다고 느낀 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해외장기어학연수가 7차 초등영어듣기목표 지도에 도우미 되었는지 여부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배운 내용들이 7차 초등영어듣기목표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물었다. 실용회화를 하면서 향상된 언어능력,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갔다 온 것에 따른 자신감, 수준별 지도를 하게 된 점 등으로 해외장기어학연수가 7차 초등영어 듣기목표 지도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답을 한 교사의 답변이다.

도움이 됐죠. 실력이 향상됐으니까 일단. 여기서 말하는 목표들이 기본적인 회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영어니까 그거를 거기서 살면서 늘상 써야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B교사)

갔다 와서는 아무래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듣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알다시피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듣기에서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D교사)

실제적으로 이게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신감이 생겼
겠죠. 왜냐하면 더 많이 들리니까. 어학연수 가기 전에는 이거를 가르치기
힘들었는데 갔다 와서 더 좋아졌다 이런 거 보다는 가르칠 수 있었는데 갔
다 왔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겠다'이고 가르치는 방
법이 달라진 거는 아니고...(E교사)

교사의 영어 발음이 비교적 정확하므로 교사가 직접 속도를 조절하며 대화
내용을 들려줌으로써 아동들에게 수준별 지도를 할 수 있는 점이 도움이 되
었어요.(F교사)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듣기 지도의 방향 중 여러 나라의 발음을 학생들에게
들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교사의 답변이다.

교수법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방향은 차이가 있어요. 가르
치는데 여러 나라의 발음을 아이들이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갔다 와서
느낀 거고요. 토익도 바꿨잖아요. 영국발음, 미국발음, 뉴질랜드 발음까지 골
고루 섞어서 하는데 초등에서는 교사의 재량이 많아요, 재구성해야 할 부분
에서. 외곽지에 가서는 기본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벌써 하
는 아이들은 기본성취기준을 뛰어 넘기 때문에 다양한 발음을 듣게 할 필요
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즉 수준별로 하면 재구성 차원에서는 선생님이 다양
한 발음에 관심을 갖고 가르칠 필요는 있겠다 이거지요.(C교사)

해외장기어학연수가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 듣기 지도에서 자신감 향상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사의 다양한 체험은 지도
방향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나타난다.

3)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영어듣기 부분을 발달단계에 맞게 가르치는 데 도
움이 되었는지 여부

7차 교육과정의 초등영어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발달단계에 따
라 성취기준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 해외장기어학연수가 발달단계에 맞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 물었다.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갔다 왔다
고 해서 초등영어를 지도할 때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가르치는 것에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어학연수라는 목표로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발달
단계에 맞게 가르치는 영어교수법 내용은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별로 관련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학연수 내용이
교수법 쪽이 아니고 어학연수 쪽이었기 때문에.(A교사)

그건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배운 게 어학이었지 교수방법이 아

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도움이 됐겠는데 그게 아니어서.(B교사)

해외어학연수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해외어학연수가 교수법을 변화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적인 면, 방향적인 면, 아니면 심화 단계 이런 면이지. 즉 발달단계에 맞게 가르치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봐요.

해외어학연수를 갔다 오면 자기 자신감이 잘 가르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보면 구사력은 부족해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 계시잖아요.(C교사)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수법 쪽으로 배운 게 아니라서. 교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E교사)

어학실력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장기어학연수이므로 발달 단계에 맞게 가르치는 교수법과 관련이 미미하고 따라서 그런 쪽의 향상 혹은 함양이 부차적으로 얻어졌다는 답변은 거의 없다. 이를 통해 해외장기어학연수와 발달단계에 맞는 초등영어교사와는 상관 관계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4) 초등영어듣기지도에 필요한 자질을 해외장기어학연수 혹은 국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영어사용능력, 영어교육학적 지식, 영어수업기술은 앞서 정리한 대로 초등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듣기 부분에서 이러한 자질을 형성하는 것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7차 교육과정 초등 영어 듣기 부분을 가르치는 자질이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도 가능하고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이다. 그 이유로 국내에서도 초등영어교사를 기르는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진 점과 초등영어교육과정 성취기준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 나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서 배우는 것이 현장감 면에서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과 국내에서 함양하는 것이 한국사람의 취약한 부분을 잘 알고 가르치기 때문에 더 낫다고 답한 의견이 있었다.

가르치는 것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가능하다. 교수법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오히려 듣기나 읽기 같은 것은 내부 사람들한테 배워야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야 더 잘 가르친다고. 그래서 뭐 나갔을 때 듣기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듣기가 되잖아요. 오히려 국내에서 배우는

게 선생님들에게도 좋고 학생들에게도 요령을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A교사)

국내에서도 가능하죠. 물론 해외에서도 가능하고... 국내에서 충분히 듣고 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바뀌어져서 영어환경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영어환경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맹점이 있어요. 뭐냐하면 정말 우리가 생활영어 일상에서 쓰는 영어는 분명 달라요. 더 빨리 얘기하고, 여기처럼 천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장감을 익히려면 나가서 듣는 것이 훨씬 낫고 근데 기본적인 단계를 여기서 어느 정도 듣기를 띄고 나가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거의 미국식 영어고 한테 나가 보면 영국식 영어를 더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각이 더 넓혀지고 발음 하나만 해도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나 다 다르고 영국식 영어가 강하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 할 수 있고, 여기서 공부하고 그런다면 정보차이고. 'water'도 '와터'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선생님 발음 이상해요 하면 기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서 그런 걸 다 경험하고 한 사람은 '나라마다 다 다르단다' 그런 게 다르겠죠.

근데 가르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그런 환경을 접한다면. 다국적인 외국인을 만나거나 지금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B교사)

영어사용능력은 사용하는 거니까 해외 나가서 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학적 지식이나 수업기술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용능력도 (국내에서 하는 것이) 초등 가르치는 데는 문제없고요.(C교사)

초등학교 3-6학년 수준은 그냥 여기에서 영어 연수를 받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면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단지 teaching skill 같은 경우에는 그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건 선생님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교수법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선생님들이 5학년, 6학년 과정이 문장도 길어지고 시간도 길어지고 하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자신감이 있으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갔다 오신 선생님들이 말하기나 듣기에 자신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꾸준하게 영어공부 한 선생님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D교사)

국내에서 불가능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똑같은 조건이면 저는 나가서 하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나가서 하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실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사람도 따로 모아야 되고 상황도 다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E교사)

초등영어 듣기지도를 위한 자질을 기르는 것이 국내에서 가능하다고 답한 교

사는 대상자 전부이다. 바꾸어 말하여 초등영어교사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장기 해외어학연수를 꼭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없었다. 다만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실질적인 상황을 접할 수 있고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발음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어학연수의 장점을 꼽고 있다.

나. 해외장기어학연수와 초등영어말하기 지도

1) 말하기 목표 실현이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에 어렵다고 느꼈는지 여부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말하기에서는 가장 어려운 성취기준이라 할 수 있는 6학년 말하기 목표를 보여주며 목표성취를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에는 어렵다고 느꼈는지 물었다. 실제로 초등영어말하기 목표 정도를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보다는 유창한 영어 말하기가 되지 않는다는 심리에서 오는 부담감 등이 교사들에게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이런 건 있어요. 교과서에서 제시된 규칙적인 문장은 그냥 아이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자기 내부 속에서 끄집어 내 가지고 자기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는 거의 안되더라고요. 불가능하다고 느껴서.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말하기를 지도를 하는 데 우리는 진짜 격식에 맞는 그런 것을 구사를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현지에 갔다 오면 거기서 말하기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 나중엔 문화 쪽 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그런 쪽에서는 도움이 아이들에게 되지 않을까?(A교사)

어렵다고 느꼈어요. 기본적인 말하기인데 어렵다고 느꼈죠. 일단 말하는 자체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 외워서 얘기하는 것 같고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건가 하는 영어실력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거... 그리고 대개 관용적인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딱 교과서에 나온 그 표현만 가르치게 되잖아요. 근데 대개 다양한 표현들이 많은데 거기서 오는 한계인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지도한다고 해도 나는 어렵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능숙하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보고 얘기할 거거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B교사)

교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초등영어 말하기 지도의 범위는 성취목표달성을 위한 지도를 넘어 교육과정 혹은 지도서에 나오지 않은 표현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2) 해외장기어학연수가 7차 초등영어말하기목표 지도에 도움에 되었는지 여부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배운 내용들이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 말하기목표 성취
를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
분인지 물었다. 영어표현을 능숙하게 말하게 되고 자신감에서 오는 용기 등이
초등영어 말하기 부분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이지 않은 표현도 말하게 되고, 영어로 하는 수업도 편해지고.
저는 발음 같은 것도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억양을 강조 안 하잖
아요? 거기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대화에서 잘
들리지가 않는데요. 그런 부분을 아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되고...(A교사)

언어능력 쪽으로 말하기 자체 즉 영어를 쓰는 데는 훨씬 편안해 졌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
었어요.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도 갔다 오고 나서 하게 되고요.(B교사)

구사력. 어떻게 읽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고, CD롬 들
는 것 하고는 다르니까, 구체적인 의미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어
요.(C교사)

자신감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D교사)

실제적인 탁탁 드러나는 도움은 없지만 그전보다 소화를 많이 했기 때
문에 알게 모르게 자신감이 많아졌을 거고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지 ' 연수
로 인해서 달라졌다' 이런 건 아니에요. 초등이기 때문에 수준이 그
리 높지 않잖아요? 물론 교사의 자질이 높으면 더 좋겠지만.(E교사)

단계별 성취 기준에 따른 말하기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키우기 위해 교
사와의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 점에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학생들의 유창하나 정확하지 않은 말하기의 오류
등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F교사)

해외장기어학연수가 말하기 능력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이로 인하여 얻어진 자신감이 초등영어지도에 도움이 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말하기 오류를 수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고
억양을 강조하게 되는 교수방향도 얻고 있다.

3)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영어말하기 부분을 발달단계에 맞게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발달단계에 따라 성취기준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 해외장기어학연수가 발달단계에 맞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 물었다.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 말하기 부분을 각 학년 발달단계에 맞게 가르치는 것에 해외장기어학연수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교사가 거의 대부분이고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교사도 있다. 이유를 제시한 교사가 없기 때문에 직접인용은 하지 않는다.

어학위주의 해외장기어학연수는 발달단계에 맞게 가르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미하다고 보인다.

4) 초등영어말하기지도에 필요한 자질을 해외장기어학연수 혹은 국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영어사용능력, 영어교육학적 지식, 영어수업기술은 앞서 정리한 대로 초등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말하기 부분에서 이러한 자질을 형성하는 것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말하기부분을 가르치기 위한 자질을 기르는 것이 해외에서도 가능하고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보인다. 그 이유로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을 빠른 시간에 얻기 위해서는 해외어학연수를 가는 쪽이 낫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언어능력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A교사)

국내에서도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해외에 나가면 사용능력에는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C교사)

가르치는 자질을 함양하는 것은 테솔이나 교수법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2외국어로 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교수법을 익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해외에서도 이런 과정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생겼잖아요. 대학원에도 테솔과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B교사)

교사들 대부분의 생각은 국내에서도 초등영어 말하기지도를 위한 자질함양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빠른 시간 내에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갈 것을 권하는 내용이 있었다.

다. 해외장기어학연수와 초등영어읽기 지도

1) 읽기 목표 실현이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에 어렵다고 느꼈는지 여부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읽기에서는 가장 어려운 성취기준이라 할 수 있는 6학년 읽기 목표를 보여주며 목표성취를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에는 어렵다고 느꼈는지 물었다. 이유를 제시한 교사가 없기 때문에 직접인용은 하지 않는다.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에 초등영어 읽기 목표 도달을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느낀 교사는 연구 대상자 전체이다. 이는 듣기와 말하기 부분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이다.

2) 해외장기어학연수가 7차 초등영어읽기목표 지도에 도왔는지 여부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배운 내용들이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 읽기목표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물었다.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 읽기 목표를 가르치는데 발음면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점, 쓰기와 같이 가르치는 등 방향성에 도움 받은 점, 탁 드러나는 도움은 없지만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갔다왔다는 것에서 오는 자신감이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있다.

문장 읽을 때 발음 면에서 조금 자신감이 없었어요. 뭐 지금도 저는 거의

굳어져 가지고 해외어학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 좋아졌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공부를 해 온 거니까 도움이 되겠죠? 역양 쪽도 그렇고.(A교사)

가르치는데 방향성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었어요.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읽기, 쓰기를 따로 가르친다기보다는 통합하면서 가르치고 읽기도 하나씩 읽어보고 보통 말하기 할 때 읽기를 같이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어학연수 전에 안했던 방법은 아닌데 그게 필요성을 더 느껴서 퍼센트를 두게 되었어요.(C교사)

실제적인 탁탁 드러나는 도움은 없지만 그전보다 소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신감이 많아졌을 거고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지 연수로 인해서 달라졌다 이런 건 아니에요. 초등이기 때문에 수준이 그리 높지 않잖아요? 물론 교사의 자질이 높으면 더 좋겠지만.(E교사)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배운 내용들이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 읽기목표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연수내용 중 읽기 부분을 단문 중심정도로 수강하면서 많이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냥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해외장기어학연수 프로그램 구성이 굳이 읽기를 많이 강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문중심이었고 거의 뭐 말하기에서 연장 정도 즉 말하기를 두 세 문장 나열했다는 정도였거든요.(B교사)

읽기 부분의 자질함양은 관련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을 때 향상이 기대된다는 것을 답변을 통해 알 수 있다. 듣기와 말하기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부분이어서 자연스럽게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읽기 부분은 의도적으로 영어 문장을 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3)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영어읽기 부분을 발달단계에 맞게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발달단계에 따라 성취기준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 해외장기어학연수가 발달단계에 맞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 물었다. 이유를 제시한 교사가 없기 때문에 직접인용은 하지 않는다.

앞서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하여 발달단계에 가르칠 수 있는 자질 함양이라는 부차적인 효과는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 답변을 통해 나타났다.

4) 초등영어읽기지도에 필요한 자질을 해외장기어학연수 혹은 국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영어사용능력, 영어교육학적 지식, 영어수업기술은 앞서 정리한 대로 초등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읽기 부분에서 이러한 자질을 형성하는데 해외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해외에서도 가능하고 국내에서 가능하다는 경향이 나타났다.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읽기 부분 성취기준이 그리 높지 않고, 해외에 나가도 국내와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외에서 가능하고 국내에서도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해요.(A교사, C교사)

해외에서도 가능하고 국내에서도 물론 가능해요. 왜냐하면 초등과정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초등과정이 교육과정에서 딱 정해져 있는 제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D교사)

해외에서 가능하고 국내에서 다른 영역보다 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기니까. 말하기 같은 경우는 영어 환경이 되서 내가 영어를 더 써야 하는 환경이 되어 있고 듣기 같은 것도 그래야만 늘지만, 읽기는 혼자 읽어야 되는 거니까. 해외에서도 혼자 읽어야 되고 국내에서 혼자 읽어야 되고.

해외에서도 따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리포트 하기 위해서 읽기는 했지만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환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서 더 잘 될 것 같아요. 책도 많이 나오고.(B교사)

영어사용능력, 영어교육학적 지식, 영어수업기술 등의 초등영어 읽기지도를 위한 자질을 기르는 것이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 가능하다고 답한 교사가 연구대상자 전체였으며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읽기지도 목표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함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해외에서도 읽기 환경을 일부러 접하지 않는다면 실력 함양이 어려우므로 오히려 참고 도서가 많은 국내에서가 더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라. 해외장기어학연수와 초등영어쓰기 지도

1) 쓰기 목표 실현이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에 어렵다고 느꼈는지 여부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쓰기에서는 가장 어려운 성취기준이라 할 수 있는 6학년 쓰기 목표를 보여주며 목표성취를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에는 어렵다고 느꼈는지 물었다.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에 초등영어 쓰기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 지도는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작문 쪽으로 가면 문법에 맞게 쓰는 것 등이 힘들었다는 답변을 했다.

이런 기본적인 거에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아이들 기억하게 만들고 테스트 거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심화과정으로 간다면 굉장히... 왜냐면 속에서 자기가 생각을 해 가지고 그거를 써야 하는데 저도 쓰기는 잘 안되거든요. 판사부터 지금 다 틀리고 있으니까.(A교사)

물론 주어진 것을 제대로 썼는지 봐 줄 수 있겠지만 애들이 쓰는 게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쓰기는 좀 어려웠어요. 일단 표현하고.. 쓰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말하기보다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인지? 초등학교 수준을 생각한다면 어렵다라기 보단 그냥 그래도 좀 곱끄럽다. 왜냐면 봐주고 수정하고 그 자체로 쓰기를 약간 불안해 하니까.(B교사)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가기 전 초등영어 쓰기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답한 교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쓰기가 작문 수준이 아니고 단순한 보고 쓰기의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아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쓰기가 작문이 아니에요. 단지 문장 구성이잖아요? 중학교 가면 작문 부분이 나오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단어쓰기, 6학년 가야 문장 들어가는데 문장도 간단하게 베껴 쓰기, 보고 쓰기 그 장르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선생님들이 여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과정에서 딱 정해져 있는 제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D교사)

쓰기 지도의 내용을 작문으로 확대할 때는 어렵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하고 정해진 내용을 지도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해외장기어학연수가 7차 초등영어쓰기목표 지도에 도우며 되었는지 여부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배운 내용들이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 쓰기목표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물었다.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 쓰기목표를 가르치는데 해외장기어학연수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답변이 있었다. 도움을 받은 부분은 영국식 영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점, 쓰기 부분을 자주 지도받은 것에 따른 쓰기 지도 능력 향상, 쓰기 부분을 실생활과 연관시켜 가르치게 된 점, 자신감 부분, 오류수정에 대한 식견 형성 등을 꼽았다.

저는 그거 느꼈어요. 영국을 갔기 때문에 거기 철자가 미국하고 다르거든요. 영어 중에도 이런... 그니까 내가 영국영어를 몰랐으면 누군가가 그런 단어를 썼을 때 틀렸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생

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인이 이거를 가르치기에는 많이 어렵겠다. 전문적으로 가다 보면 관사 구분이 거의 안 되고 복수 단수 구분이 거의 안 되서.. 물론 주어진 패턴에 맞게 하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데...(A교사)

거기서 쓰기를 지도 받았으니까 도움이 되었어요. 매번 제가 쓴 것을 읽은 후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었으니까요 매일매일. 일단은 간단한 기본적인 생각, 느낌 쓰기, 표현하기에 도움을 받았고. 애들 지도 할 때도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봐 줄 수 있다. 지도서를 보지 않고서라도. 표현이 맞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기본 역량이 개발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도 스킬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실력이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B교사)

이것도 방향성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어요. 쓰기라고 하면 단어 쓰기, 문장 쓰기가 아니라 배운 내용을 실제적인 것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것에 좀 더 많이 퍼센트를 두게 되었죠. 쓰기를 우리는 미니북도 만들고 자기 명찰 만들기라든가, 실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처음에는(가기 전에는) 그런 것 하는 것은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문장 암기식, 쓰기 식이었는데.(C교사)

자신감 부분에 도움이 되었어요.(D교사)

심화과정에서 예시문을 참고하여 실물이나 그림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 활동과정 중 학생들이 정해진 답변과 다소 다른 쓰기를 하더라도 맞는 문장으로 인정해 주거나 오류를 바로 잡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F교사)

해외장기어학연수의 내용은 초등에서 하는 쓰기와 다른 방향이었으므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교사의 답변이다.

제가 배운 쓰기는 작문이었어요. 초등에서 하는 쓰기는 작문이 아니잖아요?(E교사)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배운 내용이 쓰기 목표 성취를 위한 지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교사가 대부분으로 각 나라별로 다른 철자에 대한 이해와 쓰기 지도의 방향 수정, 작문 능력 향상 및 작문 오류 수정에 대한 능력 향상, 자신감 향상 등에서 해외장기어학연수는 초등영어교사의 쓰기 부분 능력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영어쓰기 부분을 발달단계에 맞게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발달단계에 따라 성취기준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 해외장기어학연수가 발달단계에 맞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 물었다. 이유를 제시한 교사가 없기 때문에

직접인용은 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쓰기 능력 향상이라는 원래의 목적 달성 외에 쓰기 영역을 발달 단계에 맞게 가르치는 자질 함양이라는 부차적인 영향은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초등영어듣기지도에 필요한 자질을 해외장기어학연수 혹은 국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영어사용능력, 영어교육학적 지식, 영어수업기술은 앞서 정리한 대로 초등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쓰기 부분에서 이러한 자질을 형성하는데 해외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국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초등영어 쓰기지도에 관한 내용을 연수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국내에서도 충분히 지도받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만 영어권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세세한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장기어학연수의 장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했을 때는 쓰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거잖아요. 혼자 앉아서 문법이랑 이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거기서도 제대로 받으면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뭐가 있냐면 말하기 할 때 하는 말이 다르고 쓰기 할 때 하는 게 다르고 해요. 예를 들면 it's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쓸 때는 꼭 it has라고 풀어서 쓰던가 it is라고 풀어서 써야 되는데 말할 때는 it's라고 줄여서 말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이런 걸 표현할 때는 그런 작은 걸 봐 주거나 할 때는 좋긴 한데 국내에서도 다 가르쳐 주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B교사)

초등만 봤을 때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해외에 나가는 것이. 제가 배웠던 부분은 저를 선생님과 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똑같이 대했기 때문에 초등 쓰기만 본다면 별로 해외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쓰기면 상관이 없는데.(E교사)

영어권 나라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쓰기의 용법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점 등으로 초등 쓰기 영역을 가르치는 자질을 기르는 것에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초등영어쓰기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이 아니라며 굳이 해외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답변도 있었다.

마. 해외장기어학연수와 초등영어문화 지도

1) 문화 부분 목표 실현이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에 어렵다고 느꼈는지 여부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초등영어에서 지도해야 하는 문화 관련 목표 실현이 해외장기어학연수 전에는 어렵다고 느꼈는지 물었다. 문화지도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해외어학연수 전에 막연하게 느껴지거나 그저 하나의 정보로 느껴졌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묶어진다.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전달하는데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냥 책에서 본 거 그런 느낌으로 전달을 해 주기 때문에 그냥 가르쳤던 것 같아요.(A교사)

'어렵다'라는 것보다 '관심이 없었다'죠. 이런 걸 왜 가르치나 이걸 교수 목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B교사)

가르칠 수는 있죠. 사실적인 정보니까 어렵지는 않았지.(C교사)

네.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경우 실제 그들의 문화를 교사도 깊숙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르쳐야 하므로 어렵다고 느꼈어요. (F교사)

'가르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적인 내용의 전달에 그칠 뿐 실제적인 이해도 없었고 사실여부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경험하지 못한 교사들 대부분이 느끼는 문화지도에 대한 생각이다.

2) 해외장기어학연수가 7차 초등영어문화목표 지도에 도우며 되었는지 여부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배운 내용들이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 문화 부분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 부분을 가르치는 데에 해외장기어학연수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매우 강하게 느껴지는 답변이 많다. 그 이유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습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경험을 예로 들려 줄 수 있기 때문에 등이 나왔다.

확실히 갔다 오면 제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더라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죠. 아이들은 좀 더 신뢰를 하지 않았을까?(A교사)

문화를 교수 목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대화 말고 제스처를 실수하는 걸 보면서 말을 잘 못해도 이런 것들을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기 문화지도 목표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가는지 똑바로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필요하는 것도 피부로 느꼈어요. 미국이라고 절대로 굽신굽신거리면 안되고 나의 주장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문화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 문화는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오히려 더 인정받는 다는 것어요. 미국 같은데서는 좀 어린애들 만나면 자기 문화 굉장히 우월하다는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동양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외국인 문화를 배울 때 사대주의 사상으로만 흐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도가 될 것 같아요.(B교사)

진짜 case by case다. 어떤 사람은 직접 대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결혼했나? 이 사람네는 그렇게 안 배웠나 할 정도로.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건 안 물어본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걸 묻지? 할 정도로. 또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 하면 육식이 주다. 하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져서 육식 위주의 식사가 아니라 웰빙해서 그 사람네도 식습관이 많이 달라 있고. '사람은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이거를 꼭 일반화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는 가르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람 경향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대화는 싫어하는구나 그니까 눈치가 빨라야지. 애들한테도 예의를 갖춰서 공손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하는데 근데 사실적인 정보로는 줄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너무 과장되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C교사)

단지 갔다 오면 문화에 대해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애들에게 얘기해 줄 것도 많고 이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인사를 하거나 그러면 직접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이랬다 하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책에서 읽은 거 하고 경험한 게 틀리잖아요.(D교사)

문화에 대해서 그렇다더라 하는 것과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말해 줄 수 있었어요.(E교사)

네, 직접 경험한 내용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어서 더욱 실감났으리라 봐요.(F교사)

문화 지도에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진술하는 교사들의 생생한 표현에서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문화지도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 겪은 작은 일화들이 학생들에게 전해 질 수 있는 문화지도 내용이 될 수 있고, 살아 있는 경험을 말해주는 것은 영어수업을 흥미진진하게 하며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3) 초등영어문화지도에 필요한 자질을 해외장기어학연수 혹은 국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영어사용능력, 영어교육학적 지식, 영어수업기술은 앞서 정리한 대로 초등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이에 덧붙여 문화 이해 부분도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자질을 형성하는데 국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해외에 나가서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문화지도를 위한 자질 형성이 국내에서도 가능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경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로 국내에서 하려면 영어권 나라와 똑같은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점과 문화는 직접 경험했을 때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좋기 때문이라는 점 등이 나왔다. 국내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다면 문화부분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제시도 있었다.

국내에서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갔다 오면 자기의 경험이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A교사)

이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랬다더라 해도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정말 느끼고 와서 문화를 얘기해 줘야지 거쳐서 들어서 하는 얘기는 이미 건너왔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아주 떨어질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해 줘야지.(B교사)

요즘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니까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도 가능하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직접 겪어 보면서 정보를 수정하지 않을까 영어교육이든 다른 거든,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을 성장하면서 그 정보를 수정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원어민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든가 우상시 되는 거 조심해서 잘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C교사)

근데 요즘은 이 부분이 원어민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학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어민 선생님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 갔다 오면 진짜 좋고 경험한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서 부족하다 하면 원어민 선생님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D교사)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에 나가기를 원하는 내용이 매우 강하다. 문화지도라는 부분 자체가 지식으로만 알고 전달해 주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여 느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살아 있는 교육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원어민 교사가 학교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문화 부분은 원어민 교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4. 해외장기어학연수와 배두본(1998)이 제시한 초등영어교사 지도자질

가. 해외장기어학연수와 초등영어교사의 언어 자질

1) 해외장기어학연수와 초등영어교사의 듣기 능력

배두본은 초등학교 시청각 자료를 듣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성인의 일반적 화제에 관한 간단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영어를 사용하는 성인이 정상적인 대화 속도로 하는 말을 이해하는 정도까지를 초등학교 영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듣기능력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능력함양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도 가능하지만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가면 영어환경에 많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갈 것을 권하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나라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몇 십 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도 잘 안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노출 정도가 작아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떠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듣기는 확실히 해외어학연수를 갔을 때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A교사)

제가 이런 사람도 봤고 그니까 국내에서 성인의 정상적인 대화 속도로 말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갔다 와서 더 향상되는 사람도 봤는데 뭐라고 딱 불가능하다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된다면 나는 갔다 오는 게 좋지 않을까.(B교사)

국내에서. 지금은 많이 변했으니까 상황이. 자기 노력 아닌가? 최고의 것도 할 수 있다.(C교사)

근데 이거는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영어교사라면 영어에 관심을 갖고 뭔가 노력하잖아요. 특히 요즘 들어서 원어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면은 더 도움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영어로 해야 하고 영어를 듣고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지역에 따라 다르거든요. 미국에 갔을 때는 미국 스타일이고 영국에 갔을 때는 영국 스타일이고 나는 그거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와 보면 이게 또 틀리니까... 여기서 영어를 사용하는 정상적인 대화 속도라고 했는데 어떤 영어를 사용하는 성인이 기준이 되는 건지도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한다고 해서 못하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고 사람에 따라서 언어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습득해서 여기서도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얻고 싶다면 갔

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D교사)

다양한 방향으로 답변이 나왔다. 해외어학연수를 통해 단시간에 많은 듣기능력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권하는 내용도 있으며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도 있다.

종합하여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영어듣기 능력을 향상 시키고 싶다면 해외어학연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듣기능력함양이 국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경험한 연구대상자 대부분의 의견이다.

2) 해외장기어학연수와 초등영어교사의 말하기 능력

배두본은 교안을 참고하여 구문 상으로 크게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영어로 수업을 하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성원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에서부터 영어로 수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고, 준비된 원고를 일일이 참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창하게 말하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원어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초등학교 영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 말하기 능력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능력함양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듣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에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국내보다는 해외를 권한다는 의견이 보인다.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해외에서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차이거든요. 확실히 영어를 많이 말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오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 능숙하게 말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한 시간 정도 해 봐도 크게 많이 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해외 쪽을 추천하고 싶어요. 물론 본인이 노력만 하면 국내에서도 가능하지만.(A교사)

국내에서도 가능하다. 근데 힘들다. 이렇게 이 경지에 오르기까지. 나가면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기간은 길겠지만 예를 들어서 훨씬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똑같이 2년을 친다면 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공부했을 때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확률이 50:50이라면 미국에서 내가 2년을 있었다 그러면 70-80%는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생존해야 하니까 그리고 몰입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없는 게 몰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기를 못하는 거니까 가장 힘든 것도 말하기고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몇몇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몰입할 수 있는 해외로 나가는 게 더 좋다고 여겨지구요.(B교사)

솔직히 말해서 영어말하기 이거는 해외어학연수로 되겠죠. 근데 그 수준이 그렇다고 완전히 1년을 갔다 오더라도 한국인이 많은 곳에 갔다 오면 이게 성취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가서까지 그렇게 할 선생님은 안계시겠지만 가서 하면 당연히 더 가능하긴 하지만 국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어민이라거나 충분히 여러 가지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D교사)

배두분이 제시한 초등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말하기능력함양이 국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모두이다. 그러나 생활을 위해서 영어로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영어말하기가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경험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말하기능력을 빠른 시간 내에 함양하고 싶다면 해외어학연수를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3) 해외장기어학연수와 초등영어교사의 읽기 능력

배두분은 친숙한 주제에 관한 간단한 글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교재를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부터 영어로 쓰인 신문이나 잡지에 수록된 일반적 자료를 읽고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독해능력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능력함양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읽기부분은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가더라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환경이라는 점과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 읽기 부분 성취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함양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 보인다.

국내에서도 가능하다. 충분히. 해외에 나가서도 국내에서와 (독해) 환경이 마찬가지로예요.(B교사)

독해는 오히려 읽기, 쓰기는 초점을 안 맞춰서 모르겠지만 특히 초등부분은 독해라든가 쓰기 부분에 강조되지 않고 물론 8차에서 강조될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는 교과서만 교육과정만 있을 때에 그렇게 심도 있는 부분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은 물론 그보다 더 많이 알아야겠지만. 독해는 특히 읽고 내용 이해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가면 마찬가지로 더 좋기는 하겠지만 국내에서 가능하다고 봐요.(D교사)

배두분이 제시한 초등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독해능력함양은 국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해외장기어학연수의 프로그램 중 읽기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에는 국내에서와 환경이 같다는 의견도 있다.

4) 해외장기어학연수와 초등영어교사의 쓰기 능력

배두본은 교실 수업에서 예문을 바르게 제시하고 교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짧고 간단한 편지를 쓰는 정도에서부터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편지, 보고서, 요약문 등을 쓸 수 있는 정도까지를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작문능력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능력함양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를 권하는 쪽과 해외를 권하는 쪽 등 양분된 의견이 나타났다. 국내를 권하는 쪽은 국내에서도 누군가가 지도를 해 준다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고 해외를 권하는 쪽은 국내에서는 작문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거는 어학연수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국내에서 작문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요. 어학원을 가도 그렇고 체크를 해 주시는 분도 저는 대학 때부터 배웠던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어학연수를 가니까 제가 시험 준비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정안에 아예 그런 게 있어서 계속 쓰고 계속 체크 받고 그래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A교사)

이것도 국내에서도 가능하다. 저는 해외어학연수 때 몰입을 해서 받았으니까 도움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누가 작문 지도 해 준다면 느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B교사)

배두본이 제시한 초등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작문능력함양이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가능하려면 계속해서 쓰기 부분에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종합할 수 있겠다.

나. 해외장기어학연수와 초등영어교사의 교육학에 관한 지식함양

배두본은 의사 소통, 발음과 문법 유형, 국어와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알고, 학생들의 학습심리와 언어 발달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아는 정도에서부터 의사소통기능, 언어 습득과 학습 이론, 오류 분석과 담화 분석 이론, 문화적 차이점을 알아 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교육학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능력함양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어학연수는 언어능력함양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영어교육학적 지식도 부차적으로 얻고 있는지 묻은 것이다. 국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 이유로 한국의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므로 한국의 학생들을 알아야 한다는 점과 어학 연수는 영어교육학적 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별개로 봐야 하며 국내에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느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있다.

국내가 낫죠. 왜냐면 우리가 가르칠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잖아요. 게네를 알아야지. 가서 배워 온다고 그건 알 수 없으니까. 이론은 어디나 다 같으니까요.(A교사)

만약에 내가 영어교육학을 미국에서 배웠다 그러면 아주 플러스가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어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갔다 왔다면 별로 이렇게 개인적인 자기 것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국내에서도 이거는 배우는 거니까.(B교사)

언어코스로만 했을 때는 교육학이 관계없는데요, 어학연수를 갔는데 교육학에 관련된 부분 프로그램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지도하는 거나 새로운 거나 받아들이는 거는 물론 가면은 좋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가만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보고 특히 요즘 인터넷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은 기본적으로 여기 국내에서도 하고 더 할 거면 교육학 부분은 해외에 갔다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D교사)

배두본이 제시한 초등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육학 지식함양이 국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연구대상자 전원이며 어학실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어학연수를 통해서도 영어교육학적 지식 함양이라는 부차적인 영향을 받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해외장기어학연수와 초등영어교사의 교수 기술함양

배두본은 언어 기능별, 의사 소통 기능, 노래, 게임,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영어를 교수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수준에서부터 교수 방법과 기술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교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교수기술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능력함양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 부차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영어 수업을 잘 하는 분을 통해 영어교수기술 함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외 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도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하게 되는 점 등에서 영어 교수법 쪽에 영향 받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교수기술도 우리 나라 선생님들이 기술이 좋은 것 같거든요. 어딜 가 봐도.

그래서 국내에서 정말 영어수업을 잘 한다는 분들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배우는게 낫지 않을까요? 다만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을 하게 된 점은 간과할 수 없겠죠.(A교사)

해외나 국내 둘 다 가능하다고 봐요. 거기서도 나름대로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좋을 것 같고요. 해외장기어학연수에서 교수법을 배웠던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지도서에만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활용해 볼까 나름대로 조사하고 찾아보고.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도 갔다 오고 나서 하게 되고요.(B교사)

배두분이 제시한 초등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수기술함양이 국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대상자 전체이다. 해외장기어학연수는 언어능력향상을 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위 교사들의 답변처럼 영어교수법 쪽에도 부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장기어학연수를 계획하게 된 동기에 초등영어지도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초등영어지도와 연관시켜 생각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발생된 좋은 효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장기어학연수 후 영어교수법 즉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 면에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물었다.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 등 연구대상자들은 영어교수법 쪽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 철자지도에 대한 견해를 넓힘, 다양한 영어교수방법 모색, 여러 가지 영어 발음 지도의 필요성 인식, 파닉스 지도의 중요성 인식 등이 그것이다.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은 갔다 오고 나서 하게 되었고, 억양을 굉장히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또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점 중 철자의 차이점도 알게 되어 누군가 영국식 영어로 철자를 썼을 때 그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식 영어라고 지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A교사)

가기 전에 일반연수를 안 받고 심화연수를 받고 간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는 지도서에 나온 대로 틀에 박혀 있었다면 좀 공부하고 나서는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좀 응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게임이나 교수기술들을 접목시키려고 시도하게 되고요. 해외어학연수에서 이런 방법을 배웠던 것은 아니지만 지도서에만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활용해 볼까 나름대로 조사하고 찾아보고.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도 갔다 오고 나서 하게 되고요.(B교사)

갔다 와서 관심도 증대되고 듣기 부분에서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영어발음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고 여겨져 듣기 부분 지도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쓰기 부분도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익히기 위한 활동 즉 미니북 만들기 등을 하게 되었고 되었어요.(C교사)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일단 자신감이 있고 수업에 그런 부분이 확실히 달라지기는 했어요.(D교사)

교수법 쪽이라기보다는 내용 면에서 문자지도, 파닉스 등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내용을 영어 정규 교육과정 내용에 첨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교사가 직접 속도를 조절하며 대화 내용을 들려줌으로써 아동들에게 수준별 지도를 할 수 있는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F교사)

앞서도 서술하였지만 어학연수의 본 목적도 아닌 영어교수 기술 함양이 해외 장기어학연수를 통해 부차적으로 얻어지고 있는 것은 해외장기어학연수자들의 관심이 초등영어지도에 있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배운 내용을 초등영어지도에 연관시켜 사고한 데서 얻어진 좋은 효과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맞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 초등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 어떠한 부분을 함양 혹은 향상시킬 수 있는가?

초등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영어기능, 영어교육학적 지식, 영어교수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각 자질에 해외장기어학연수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정리한다.

첫째, 해외장기어학연수는 영어 기능 중 특히 듣기, 말하기 부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영어권 나라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접한다는 것은 생존과도 관계되는 것이고 영어를 이해하고 필요한 말은 해야겠다는 동기유발이 매우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듣기와 말하기에 많은 향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읽기와 쓰기 부분도 발전을 보이기는 하나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찾아서 노력하지 않으면 발전되는 정도가 그리 많지 않았다.

둘째, 해외장기어학연수는 영어교육학적 지식 중 문화적 차이점 이해라는 부차적인 영향을 준다. 해외장기어학연수 중 한 남학생의 실수를 보며 문화적 차이를 깊이 느꼈다고 하는 한 연구 대상자의 일화는 문화적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 주는 한 예이다. 서로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인 연수자가 그 나라의 한 여학생에게 친밀함의 표현으로 어깨에 손을 얹었고 이를 매우 불쾌하게 여긴 그 여학생이 강력하게 항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초등영어지도 시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살아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 영어수업기술 함양이라는 부차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을 해외장기어학연수 후 할 수 있게 되고 발음 등의 오류 교정, 쓰기 지도, 읽기 지도 방법 등을 해외장기어학연수 중 자신이 학생의 입장에서 해 보았던 여러 활동과 접목시켜 영어교수 시 활용하게 되는 점은 초등영어지도를 목표로 해외연수를 가지는 않았지만 해외어학연수를 계획하게 된 동기에 대부분의 교사가 초등영어지도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었고 이러한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진 결과로 보여 진다.

연구 문제 2 :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등영어교사의 자질 중 국내에서도 함양 혹은 향상이 가능한 자질은 어떤 것들이며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서야 함양 혹은 향상되는 되는 영역들은 어떤 것인가?

연구 문제 1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리한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국내에서 얻을 수 있다. 즉 국내에서도 영어사용능력 향상, 영어교육학 지식의 함양, 영어수업기술의 계발 등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영어 기능은 단시간에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해외장기어학연수가 효율적이며 문화적 차이점을 익히기 위해서는 영어권 나라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지에서가 훨씬 용이하다.

국내에서도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어학연수는 매우 매력적인 흡인력을 갖고 있다.

이는 해외장기어학연수는 단순히 영어실력향상이라는 목적 이 외에도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즐거움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고의 전환 및 확장, 문화적 쇼크를 통한 문화적 차이 이해, 자신감 향상 등의 긍정적 영향을 가져 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점들은 초등영어지도에도 영향을 미쳐 영어지도 시 자신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부 교사나 학부모들의 인식처럼 해외장기어학연수는 초등영어 교과지도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가에 관한 의견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초등영어교사의 자질을 향상 혹은 함양하는 것이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만,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영어교사 자질함양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답한 교사들은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해외

장기어학연수를 통해 얻는 어학실력 향상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영어교사 자질 함양에 그리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 이유로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 성취기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과 초등영어교사자질함양 쪽을 위해서는 어학연수가 아닌 영어교수법 쪽 연수를 가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해외장기어학연수는 초등교사들에게 단시간에 많은 언어능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많은 교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어학연수라는 명칭에 맞게 어학실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이 점은 초등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자질 중 영어사용능력을 갖추는 것이 되므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앞서의 많은 질문에서도 비슷한 답이 나왔듯이 문화체험 부분은 직접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이는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초등영어지도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 영어교육학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또한 해외장기연수의 긍정적 효과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 등으로 인해 영어교육에 대한 부담을 많은 교사들이 갖고 있으며 영어실력향상을 위해 해외어학연수를 가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이들 중 영어실력향상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영어권 나라에 해외장기어학연수를 다녀온 6명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면담 방법으로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영어교사자질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초등영어교사자질로는 영어사용능력, 영어교육학적 지식, 영어교수법을 들 수 있겠다. 영어사용능력 중 특히 듣기와 말하기 영역은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하여 많은 향상을 보였다. 읽기와 쓰기 영역도 듣기와 말하기보다는 약하지만 향상되었다. 또, 국내에서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향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해외장기어학연수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영어교육학적 지식 중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면이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 부차적으로 얻어지고 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게 되는 점은 특히 해외장기어학연수 중 직접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부분이어서 국내에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해외에서 경험할 것을 원하는 의견이 강하였다. 영어교육학적 지식 중 발달 단계에 맞게 7차 교육과정 초등영어를 지도 자질을 해외장기어학

연수를 통해 얻는 것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수업기술 함양 부분에도 해외장기어학연수의 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을 하게 되었고, 같은 단어에 대한 다양한 발음과 철자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억양의 강조, 읽기 지도의 방향, 말하기 오류 수정, 쓰기 지도, 지도 방법의 다양화 등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장기어학연수는 영어실력향상이라는 본 목적 이외에 영어교육학적 지식 함양, 영어수업기술 함양 등의 부차적인 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교사 혹은 학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영어 교사자질함양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다. 해외장기어학연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국내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부분임을 언어능력, 영어교육학적 지식 부분, 영어교수법 함양 면의 모든 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등교사들이 해외장기어학연수가 초등영어교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연수 역시 해외장기어학연수와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 그 효과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고경석. (1993).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영어교육**, 46, 165-187.
- 고경석. (1997). 초등영어교사양성교육과정. **초등영어교육**, 3, 18-36.
- 교육부. (1997).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Ⅲ)**. 서울 : 대한교과서.
- 교육부. (1997).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Ⅴ)**. 서울 : 대한교과서.
- 김재혁. (2004). 영어 능력 개발 중심의 초등영어 교사교육 모형. **영어교육연구**, 16(2), 181-208.
- 박형기, 배두분, 전조영, 정길정. (1991). 초등학교 영어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 1, 2. **영어교육**.
- 배두분. (1998). **초등학교 영어교육**. 서울 : 한국문화사.
- 배두분. (2000).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영어교육연구**, 12(1), 113-144.
- 배두분, 김영태, 한상호. (2001). **영어교육 연구방법-이론과 실제-**. 서울 : 경진문화사.
- 이세호. (2006). **초등학교 영어교사 연수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흥익대학교, 서울.
- 이완기. (1994). **초등영어 교육론**. 서울 : 문진미디어.
- 이완기. (1997).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실시와 국어교육 강화의 필요성. **교육개발**, 106, 서울 : 교육개발원.
- 이완기, 윤보경. (2003). 초등영어 읽기·쓰기 교육의 적정성 연구. **한국초등교육**, 14(2), 439-475.
- 정명호. (1987). **조기영어교육론-현장실험을 중심으로**. 서울 : 한신문화사.
- 진지연. (2002). **초등 영어교육의 문제점-초등영어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중심으로**. 미출한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 조인스취업교육아카데미. (2007). **초등 영어교육의 길라잡이**.